

민 정 실 음 진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토요일 (20일 저녁 9시) - 일요일 (21일 아침 6시) 성도제일 철야 정진

넷째주 일요일 11시 예불문 해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보이지도 않으며

다루기도 힘든 것이 마음이니,
 마음은 쉬지않고 허황한 것 쫓아 헤맨다.
 이러한 마음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보호케 한다면,
 마음은 커다란 기쁨 원천이 되리

Invisible and subtle is the mind, and it flies after fancies wherever it likes; but let the wise man guard well his mind, for a mind well guarded is a source of great joy.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7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베풀면 복전이 됩니다”

정해년(丁亥年) 붉은 해가 천지(天地)를 감싸고 빛을 놓으니 곳곳에서 법뢰(法雷)가 울리고 무위대화(無爲大化)가 일어납니다. 청룡(靑龍)은 대천세계(大千世界) 밖으로 힘차게 날고 백호(白虎)는 만길 봉우리 위에서 포효(咆哮)합니다.

무생(無生)의 즐거움이 일월(日月)로부터 모이고 건곤(乾坤)의 덕(德)이 영산(靈山)에서 내려옵니다. 보살(菩薩)은 곳곳에서 차별 없는 대시문(大施門)을 열고 사람들은 줄 없는 거문고로 풍류(風流)를 즐깁니다.

금계(金鷄)는 신령(神靈)스러운 구슬을 토(吐)해내고 껍질 벗은 거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진여법계(眞如法界)에는 만덕(萬德)이 갖추어 있고 수용(受用)이 자재(自在)하고 묘용(妙用)이 널려 있으니 구하고 버리지 않아도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탐하는 사람은 현지(玄旨)를 잃게 되고 버린 사람은 본분소식(本分消息)을 밝힙니다. 다투면 길을 막는 마왕(魔王)이 침투하고 베풀면 남을 위한 복전(福田)이 됩니다. 구하고 찾지 말라 산하대지(山河大地)가 그대들의 보고(寶庫)이니라

木人剔開金殿鎖 石女撞動玉樓鐘

목인은 황금대궐의 열쇠를 열고 석녀는 옥루각의 종을 치도다.

정해년 원단 불기 2551년 1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신년사

“화합과 상생의 잔치마당 열리길”

어느덧 병술년이 지나가고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이어지고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병술년은 우리에게 기꺼움 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겨레의 통일로 향하는 순항로에 ‘북한 핵’ 문제라는 장애가 나타나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며, 집값의 상승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우울함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희망의 싹을 키워왔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으며, 대외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 문제의 해결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우리 국민이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해외 동포 모두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와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밖 세상에서도 종족과 종교를 둘러싼 대립과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칠 줄 모르고 커져만 가는 인간의 무자제, 무분별한 욕망으로 지구의 생태가 몸살을 앓고,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일어나 히말라야와 알프스의 설산이 녹아내리고 대양의 섬이 사라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밝은 희망과 상극의 어두움이 교차했던 지난 병술년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정해년 새해에는 온 세상에 모든 계층의 국민이 화합과 상생의 잔치 마당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증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어울려 신명을 펼치는 축제가 되고,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게 설계하는 희망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선은 또 다른 선을 낳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의 싹을 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꾸어 ‘나’와 ‘세상’이 화해하는 지복을 누립니다. 사랑과 연민, 자비의 마음은 온 세상에 펼치도록 노력합니다. 나를 위하는 일이 곧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고, 세상을 위하는 일은 곧 나 자신을 행복케 하는 일입니다. ‘내’가 곧 ‘세상’이며, ‘세상’속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타불이’와 ‘만물일체’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극단적 대립이 사라지고 서로 협력하고 감싸주는 정토가 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온 누리를 밝게 비추어 활기가 넘치는 세상을 이룩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불기 2551(2007)년 1월 1일

2006 불교외신 결산- “불교는 세계문명 변화의 핵심화두”

올해 외신에 비친 불교는 “세계문명 변화의 핵심화두”라는 것이다. 미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세계적 갈등을 해결할 대안이자 사상적 리더로 ‘불교’를 꼽고 있으며 특히 “무의 실천(doing nothing)인 참선은 세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불교가 소비중심의 물질주의와 기독교 중심 문화가 쇠퇴하고 정신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대안종교로 급부상”하고 “잠자는 중국불교가 깨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불교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가늠하는 것이었다.

새 시대 새 행태 불교탄생 예고

미국을 중심으로 새 시대 새 행태의 불교 탄생이 예고됐다. 유대인이면서 불교를 통해 정신수행을 하는 혼합종교불자 ‘주부(JuBu)’가 유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 다양한 오해를 불러오긴 했지만 주부증가의 결론은 “세계 불교 인구를 증폭시키고 새로운 불교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대세를 이뤘다. 올 8월 르피가르가 보도한 “프랑스인 불자가 45-60 만 명에 달하며 유대교와 동등한 규모”라는 기사도 새 시대 새 행태의 불교를 방증하는 것이었다.

중국불교 세계불교 중심되나

2006년 외신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중국종교 기사가 늘었다는 데 있다. 이는 지난 4월초 중국이 저장성 항저우 일대에서 세계 34개국 1000여명의 스님을 초청해 개최한 세계불교포럼이 단초였다. 이를 계기로 외신들은 “잠자던 중국불교가 세계불교의 중심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불교포럼이 향후 중국종교정책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불교포럼이후에도 달라이라마에 대한 노골적 비난과 공무원들을 활용한 티베트 불교 탄압이 계속돼 이중적 불교정책이라는 눈살을 받았다.

한국불교 해외포교 역량 강화 노력도

미국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피해 지역에 한국불교의 정성이 직접 전달됐다. 올해 초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카트리나 재해성금 전달단이 뉴올리언스 현지에 급파되어 구호성금 14만 776달러(한화 1억 3996만원)를 카트리나 한인피해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피해교민을 위로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국에서 온 마음이란 점에서 절망에 빠진 교포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됐고 한국불교 위상강화에 한 몫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한국사찰의 재산권 보호와 현지포교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주승가회’가 올 10월 초 창립 발기한 것도 한국불교 역량 강화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사찰, 재활 및 재사회화 기관 역할 자처

불교와 사찰이 재활 및 재사회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분석기사도 많았다. 태국의 탐크라복 사원이 50년간 마약중독자 치료와 부랑자들의 갱생에 노력해 온 사례가 영국 선데이 일간지에 소개된데 이어 영국 TV 스타 조이룩커, 미국 록가수 코트니 러브 등 톱스타들이 마약 및 질병치료에 불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기사들도 경쟁적으로 보도됐다. 잔인함과 무자비한 보복으로 악명을 떨쳤던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도 올 4월초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며 사찰에서 출가교육을 받는다는 독일외신도 눈길을 끌었다.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대불 파괴 5년

<대당서역기>에 거대한 불상으로 표현될 만큼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었던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대불이 올해로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지 5년을 맞으며 많은 뉴스를 생산해냈다. 그동안 탈레반에 비관용적 태도를 보였던 서구사회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용’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화두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문화적 파괴에 대한 아쉬움이 레이저아트 복원,

영화촬영 등으로 표출됐다.

10 개월 단식수행 네팔 부처소년 초미 관심

지나해 5 월초부터 10 개월여 동안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는 단식명상수행으로 현지인들로부터 ‘환생한 부처로’ 추앙받던 네팔의 부처소년 발덴(Parden)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스님은 세속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지 3 월 초경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납치 등의 갖가지 의혹이 일었지만 결국 스님은 지난 3 월 19 일 잠시 모습을 나타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어 명상처를 떠난 것”이라 해명하고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단식명상수행을 계속하다 6 년 후에 다시 나타나겠다”는 뜻을 전하고 사라졌다.

스리랑카 스님부족, 일본 신도모으기 안간힘

대표적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와 일본이 사찰을 운영할 절대적 스님 부족과 신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을 미리 보여줬다. 핵가족화 추세와 스님들의 고등교육, 출가에 대한 인식부족, 승가사회 연대감 부족 등은 우리 한국불교가 일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본 불교계가 사찰을 세련화시키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도확보를 위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타산지식이 될 만하다는 지적이다.

인도 불교 정체성 위기 속 불가촉민 대거 불교개종

인도 불교계가 힌두교의 한 분파로 치부되며 정체성 위기에 휘말린 사례도 주요 외신이였다. 지난 9 월 19 일 인도의 서부 구자라트주가 통과시킨 ‘2006 종교자유 개정법안’은 불교계를 포함한 인도 전역 종교신자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통과된 반개종법은 불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재분류한 것으로 힌두교인들의 타종교 이탈을 막으면서 불교를 힌두교로 포섭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삭발투쟁과 평화시위 등 인도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불가촉민들의 불교 개종 사태가 인도전역으로 확산돼 올해 들어 10 만 명 이상이 불교로 개종했다.

태국 정권 교체한 불자의 힘

국민의 90%가 불자인 불교국가 태국은 정권 교체에 불자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초 탁신 친나왓 총리에 대해 내부거레 및 탈세 등 전형적 권력형 비리가 밝혀지면서 태국의 대표적 청백리 잠룡 스리무영 전 방콕시장이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가 이끄는 불교개혁운동단체인 산티아속 소속 ‘다르마 군대’가 10 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평화시위를 주도했다. 주간에는 신행활동을 하고 밤에 평화시위를 진행한 다르마군대의 모습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탁신총리의 하야사태를 불러왔지만 군사쿠데타로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됐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禪은 과연 대안인가-종교적 측면

정신적 불안.고통 해결하는 ‘최상의 가르침’ - ‘자각적인 지혜’ 만드는 길

요즘 현대인들은 문명과 공해, 물질문명과 경제만능주의로 인간의 가치관이 전도되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위기의식과 공포, 불안, 나아가서는 인간 상호간의 불신과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현대를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었고, 미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 갈 것이다. 종교란 인간이 평안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설정의 기준이 되는 좌표이며, 지혜와 인격을 구현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정신적인 불안과 공포를 없애고, 인류 전체를 구제한다는 원대한 원력과 꿈은 제시해도 인류를 구제한 종교는 없다. 신의 구원과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불안이 치유되고 구제된다면, 왜 이처럼 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헤매고 있겠는가? 신의 전지전능과 부처님의 자비는 어디에서 잠자고 있던 말인가? 인간을 구제하는 자는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는 신도 아니며, 부처님도 아니며, 진리를 설한 경전도, 성경도 아니다.

선(禪)에서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신은 어디에 있으며,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 불법의 대의와 반야의 지혜로 깊이 살펴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선은 자각의 종교, 지혜의 종교이다. 먼저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각자 스스로가 자신을 구제하고 불안을 초월할 수 있는 원력과 구도적인 문제의식을 간절히 자각했을 때만이 비로소 자신을 새로운 차원에서 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 선은 신이나 부처님이라는 어떤 신앙의 대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간접적인 종교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경전과 어록을 읽고 불법의 대의와 정신, 사상, 지혜, 인격과 자비심을 배워서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자신의 삶을 자각적인 지혜로 만드는 길을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선은 과거나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 각자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불심)을 회복하고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깨달음으로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의 힘을 갖고 있다. 인간은 선의 실천으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실현할 수 있다. 올바른 참선공부는 수많은 경전과 어록을 읽고 불법의 정신을 체득하며, 불보살과 조사들의 지혜를 배우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선은 불법의 사상을 자각적인

지혜로 활용하는 힘이며, 일체의 불안과 근심, 걱정의 증생심을 끊는 지혜의 칼이다. 아무리 불법의 정신과 사상, 인격과 자비를 잘 알고 있더라도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하는 현재의 삶에서 자각적인 지혜작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선은 죽어버리고 만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의 칼(活人劍)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칼이 된다. 선의 특징은 인간존재의 근거이고 자연적인 생명인 신체를 중요시하며, 몸과 마음이 하나(身心一如)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당체이다. 따라서 인간을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어떤 종류나 부류로 파악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문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인간을 신에게 종속시키려는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각자의 본래심의 지혜로 탐구하는 것이 선에서 제시하는 21세기 정신문명의 가능성이 아닐까? 임제스님은 어떠한 지위나 권위에도 속박되지 않는 본래의 인간을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고 했으며,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선에서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한다. 인간 각자의 존재적인 가치와 본질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지금 여기를 사는 자신이 가장 존엄하고 귀중한 일이다. 모든 가치관은 여기서 자기를 중심으로 비롯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선은 현대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불안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이다. 불법의 가르침을 좌표의 축으로 삼고, 반야의 지혜를 지금 여기 자신의 일(삶)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전과 어록에서 제시한 불법의 가르침은 불보살과 조사들이 깨달음의 지혜와 인격을 펼친 체험적인 사실의 기록임과 동시에,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지혜와 인격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례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불법의 가르침을 판례(공안)로 삼고, 불법의 사상과 인격을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서 자각적인 지혜로 활용하는 것이 바른 선의 생활이다. 그래서 선어록에는 ‘나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일을 깨달음의 지혜로 산다(吾常於此切)’라고 했고, 임제스님은 ‘곳에 따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지혜롭게 산다(隨處作主)’고 강조했다.

선의 깨달음이란 불법의 정신과 사상을 체득해 자신의 무지(無知)와 무명(無明)을 밝히는 자기 광명의 지혜이며,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본래심의 자각이 없이는 자기의 지혜와 광명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본래의 마음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며, 자기 창조가 이루어지고, 어렵고 힘든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소외와 자기 불안, 자기상실의 현대인을 위한 길은 오로지 선을 통한 자각으로 자기의 평안한 마음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일체의 불안과 고뇌를 유발하는 증생심을 초월해 각자의 청정한 마음(불심)을 회복하는 자각을 ‘견성(見性)’이라 한다. 선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인류를 구제할 새로운 길임을 확신하고, 사바세계의 증생을 위한 보살도를 발휘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과 사명감을 자각해야 하며, 인류증생을 위한 보살도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위기를 구제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신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 각자의 깨달음으로 지혜와 인격을 구현하는 자신뿐이다. 선은 철저한 자기 자각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인간 각자가 불법의 정신으로 지혜와 자비로 보살행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남을 구제할 수도 없으며, 직장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적인 부조리도 정화할 수 없다.

동양의 마음인 선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역사적인 사명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인 마찰과 갈등이 많은 국제 사회와 세계인류에게 먼저 각자의 존재와 본연의 자세를 묻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현대 과학의 발전과 기대, 그리고 엄밀하고 정교한 기술의 성과가 현대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핵무기와 원자력의 개발에 따른

잘못된 관리와 국제적인 마찰, 전쟁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생존을 불안과 공포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선은 지금 양면의 칼날을 세계에 내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 사회의 모순을 구체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역시 신도 부처님도 아니고, 어떤 집단도 아닌 인간 각자 자신일 뿐이다. 자신이 이러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바른 지혜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 그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다. 선은 지금 세계 인류의 근본적인 모순을 풀 수 있는 힘이 인간 각자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확신시키고 있는 자각적인 종교이다. 선이 세계인류를 향해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며, 밖으로 향하는 자기의 시선과 가치관을 자기 절대 주체인 자신의 내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의 선은 현재와 현실의 종교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그 어떤 권위와 지위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불법의 정신을 체득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자각하고, 일체의 헛된 공상과 번뇌, 망념과 전도되고 착각된 사고에서 탈피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줘야 한다.

선은 신과 부처님을 의존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안정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력과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을 인간 각자가 체득하는 자각의 종교이다. 인간 각자가 불법 사상의 심화와 철저한 확신으로 올바르게 선을 이해하고 선의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인식과 가치관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 선을 통한 정신세계의 풍요로움은 물론, 현상세계의 수용 능력을 배양하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의 생활은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와 인격을 나누는 보살행을 실천할 때 구체화되며,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이 당면해 있는 현실의 자기 당체에 임해 자각적인 지혜로 창조생활을 하는 곳에서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철야정진이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Q : 다니는 절에서 부처님 성도제일에 철야 용맹정진을 합니다. 가끔은 주말에도 철야로 정진을 하곤 하는데 평소에 시간을 내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로서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어떤 때는 힘들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수행에 대한 굳은 각오와 정신이 중요; ‘할 수 있다는 용기’ 생겼다면 큰 성과

A : 많은 사찰에서 부처님 성도일(成道日)이 되면 철야로 용맹정진(勇猛精進)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도일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일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의 힘든 수련에 종지부를 찍고 일주일간의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신 날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수행자 고타마 싯다르타는 고행을 멈추면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 여인의 우유죽 공양을 받은 다음 부다가야의 네란자라강 근처의 보리수 나무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아 선정에 듭니다. 고타마는 ‘내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왕 파순으로 대표되는 마구니의 무리를 내쫓고 깊은 선정에 들어 납월 8일, 새벽별이 반짝이는 이 날에 모든 미혹의 번뇌를 일순간에 다 끊어버리고 정각(正覺)을 얻어 부처님이 되십니다. 불자들에게 이 날은 특별합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성도일 전날 저녁부터 성도일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하는 것을 보통 철야용맹정진 한다고 합니다. 불자님 같은 재가자들 뿐 아니라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전국의 선원에서도 성도일 일주일 전부터는 기간을 정해 더욱 공부에 매진합니다. 이것은 가행정진(加行精進)이라고 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특별 정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몇몇 선원에서는 아예 허리를 방바닥에 눕지 않는, 말 그대로 24 시간을 일주일동안 철야로 용맹정진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용맹정진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과 비교하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의 고행은 경전에서 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초인적인 수행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법당에서, 요즈음 더구나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별로 추운 줄도 모르고 정진합니다. 힘들고 기운이 없다고 간식 같은 것을

먹어 가면서 정진합니다. 편안한 정진이라고 할까요? 물론 잠을 자지 않고 몸을 혹사한다고 하여 용맹정진은 아닙니다. 어떤 큰스님께서서는 한 시간 더 자고 용맹정진 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용맹정진은 ‘잠을 안 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또렷하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저 앉아만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선할 때 앉아서 혼침(昏沈)에 빠지는 것이나 힘이 들고 지루해서 그저 시간만 때우는 용맹정진이 된다면 소용없는 공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에 대한, 수행에 대한 굳은 각오와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정진에 임하는 것입니다.

정진하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마치고 나서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안에다 부처님이 될 씨앗을 많이 뿌렸다고 생각한다면 큰 성과입니다. 정진을 마친다고 해서 외형적인 큰 변화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나 그런 조짐만 있어도 이번 정진은 성공한 것입니다. 철야 정진을 하고나서 마주하는 사람마다 미소로 대하고 자비로움을 전달해 보십시오. 깨달음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마음이 그대로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정초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회귀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1년 1월 1일 (양력)에 기도를 입재해서 회향하는 4월 10일 까지 정해년 정초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정해년 정초 백일 기도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10만원) 입니다.

정해년 정초 백일 기도 동참하신 신도님들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 신유생 목문석, 사천후인 목문균 영가, 기사생 박으뜸, 병인생 배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임진생 조남국, 병오생 노덕복 (박인주), 임오생 한 누미자 (Yumi Benton), 병신생 이은범 (Un Bom Grabski), 갑진생 김홍건, 병오생 도원 이찬혁, 무자생 김대원, 병술생 이주원 (단비), 을해생 무량화 김봉순, 정미생 문수연, 계축생 이금주, 병술생 유서원, 신해생 한애선, 임오생 정송자, 정묘생 방동현, 함평후인 이상명 영가, 갑자생 최효선, 을미생 김동희 (Stanly), 병오생 홍대선, 이종명, 정수빈, 정영환, 정유생 이용성, 정미생 황현식, 무술생 김정훈, 기해생 김창호, 경신생 윤찬용, 병진생 이동엽.

기도 명단이 누락되신 신도님들은 미국 불국사로 속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회소식 NEWS

정해년 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2007년에도 2006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전법 많이 합시다.

-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중생제도를 하신지 올해로 2550 번째 성도재일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어 사생자부, 과거 현재 미래와 우주의 대 스승이 되신날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려서 불자들은 철야 정진을 통해 더불어 마음에 불성을 밝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국사에서 대한 불교 조계종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올해에도 철야 용맹정진을 합니다. 참고로 성도 재일은 음력 12월 8일이고, 양력으로는 1월 26일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성도재일 철야 정진에 참가하시길 바라면서 정진날짜는 3째주로 정했습니다. 철야정진은 1월 20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하여 다음날인 일요일 아침 6시에 아침예불과 함께 회향합니다. 행사는 “법문, 참선, 자비수참, 요가, 행선, 다도, 토론,유미죽 공양”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부처님의 대각을 이루신 뜻을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재 철야 정진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축하합니다. 불국사 총무를 맡아서 고생하시는 보광 이진옥 거사님 가정과 한국 불국사 후원회 기획을 맡고 있는 여여심 이경주 보살님 가정에 따님들이 태어났습니다. 보광 거사님 댁 따님의 이름은 이주원 (아명은 “단비”입니다. “단비”라고 불러 주세요) 은 양력으로 11월 8일, 여여심 보살님 댁 따님의 이름은 “유서원” 으로 양력 12월 중순에 태어났습니다. 무럭 무럭 건강하게 성장하길 부처님전에 축원 올립니다.
- 양력으로 2월 18일은 한국 전통 명절인 음력 설입니다. 불국사에서는 2월 3째주 일요일에 부처님전에 떡국을 울리고 세배를 울리는 세알 법회가 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는 웃놀이도 있고 또한 잊지마시고 불국사에서 마련한 선물들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12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41 임신생 이근재, 142번 계유생 이근혁, 169번 신축생 한경자, 170번 갑자생 최효선, 176번 갑신생 정남주, 191번 경신생 김기영, 212번 을사생 조양임, 221번 나순자, 262번 갑인생 신동화, 276번 경오생 김경호, 317번 경술생 고상현, 318번 신해생 송은아, 319번 기묘생 고승형, 320번 신사생 고명지, 331번 무술생 정정호, 332번 무술생 전옥, 333번 병인생 정종태, 334번 무진생 정지수, 367번 병자생 윤재춘, 368번 무술생 김정훈, 369번 무술생 문명하, 370번 계해생 김수영, 371번 기사생 김동영, 381번 계축생 김성림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12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임진생 조남국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